

# 2023년 누리과정 포털 놀이를 통한 자녀성장 수기 공모전

**제목: 우리집은 작은 미술관! 나는 꼬마예술가! 엄마 이것 좀 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5살 00, 4살 000 연년생 두 딸을 기르고 있는 엄마표 놀이에 진심인 간호사 엄마입니다. 아빠는 해외 근무 중이라 1년 전 출국 후 독박 육아 중이지만 아이들 덕분에 매일 매일이 행복한 엄마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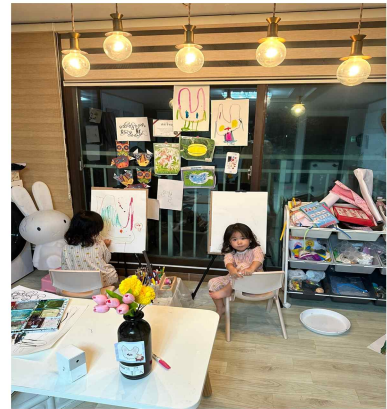
저는 아이를 낳기 전부터 아이와 하고 싶은 체크리스트가 존재할 정도로 아이와의 시간을 기대했던 엄마였어요. 아이와의 놀이 시간은 부모와의 애착 형성에 이보다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해 늘 자유롭게 해주고 있어요. 집에서 고양이와 달팽이를 키우고, 곤충과 동물을 사랑하는 큰딸이 태어나고, 5개월부터 함께 한 엄마표 놀이가 2장 가량의 A4로 담기엔 너무 방대해서, 그중 아이의 자존감을 높였던 순간들을 엄선해 보았어요.

제가 항상 주위 사람들에게 늘 하는 말로 시작하고 싶어요. 귀찮음을 줄이면 아이가 행복하다. 즐겁게 재밌게 하자! 안아주기에도 모자란 시간이다. 어린이집도 000에게 사회생활이다. 집은 너희가 가장 편해야 하는 공간이다. 너희에게 집도 엄마도 그런 존재이고 싶다.

## 1. 환경구성

### 1) 장난감과 놀이의 분리

아이 있는 집이면 장난감이 없을 수 없죠, 저희 집도 많은데, 저희 장난감보다 많은 게 색칠 도구, 도화지, 색종이, 꾸미기 재료들이랍니다. 저는 그 두 공간을 분리해 주었어요, 000 방은 장난감 방으로, 베란다는 000 작업실로 불리고 있습니다. 저희 집 베란다입니다! 여름에는 수영장이 되는 베란다! 가을 겨울에는 000의 작업실이 되는 공간입니다!



### 2) 책장

저희 집은 책이 많아요. 대부분의 집이 책이 많지만, 인테리어용으로 끝나기 마련이죠. 저희 늘 잠자리에 들기 전 책 3권을 읽고 잡니다. 그날 있었던 일에 관한 것 1권, 000이 읽고 싶었던 것 1권, 엄마가 추천하는 책 1권(영어 원서 등) 이렇게 책을 읽고, 우리 집에는 책이 거실, 잠드는 곳, 놀이방에 조금, 어디서나 손을 뻗으면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어있어요. 저도 책 읽는 걸 좋아해서 아이 낳기 전 체크리스트에 내가 읽은 책 아이에게 물려주기가 있을 정도랍니다! 5살 큰아이는 1,300권, 4살 작은 아이는 500권을 훌쩍 넘게 읽고, 집안의 모든 책을 다 읽어 보았답니다.

## 2. 작품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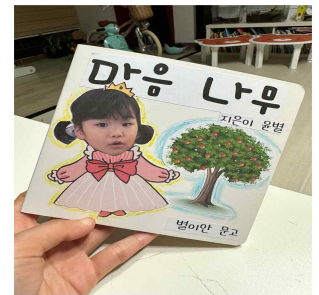
저는 아주 작은 시골 초등학교에서 자랐어요. 그때 미술에 조금 소질 있던 저는 세상에서 가장 그림을 잘 그리는 줄 알았답니다. 감사하게도 상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소규모 학교의 장점이었죠. 우물 안 속의 그 경험이 큰 사회에 나와서 좌절을 느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때의 경험이 저에게 큰 밑바탕이 되어 창의력, 남들이 하지 못하는 생각, 그리고 자존감이 높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공부보다 자존감, 나눔을 아는 아이, 위기에 극복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었어요. 전 늘 아이들의 작품을 집안 곳곳에 전시합니다. “엄마 이거 보세요~ 저 잘하죠?” 하며 자신감이 넘치는 표정의 000, “이런 색깔을 쓸 줄도 아는구나~이건 어떤 모양이야?” 이제 제법 자기 작품을 설명하고 자기 작품에 대한 질문에 척척 대답도 잘합니다.

## 3. 놀이의 긍정적인 효과 - 마음이 이쁜 아이, 긍정적인 아이, 스스로 하는 아이

### 1) 마음나무

첫째 00가 어린이집에서 친구와 장난감으로 다투고 왔어요. 그러고는 절 보더니 하는 말이 “엄마 00 마음 나무가 찢어지고, 부서지고, 다 없어져 버릴 것 같아요.”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마음이 상한다는 표현을 마음 나무가 아프다고 표현하는 00를 보고 엄마는 또 한 번 감동하였어요. 그래서 이번 00 생일에 그 이야기를 적은 00와 000가 주인공인 마음나무 동화책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의 추억 한쪽이 또 채워졌어요.



### 2) 스스로 이름 쓰는 아이

5살 큰아이 00이는 얼마 전 함께 교회에 갔을 때 동갑 친구가 이름을 적는 것을 보았어요. 엄마와 함께 친구 잘한다며 웃으며 박수를 치고 축하해 주고 왔었죠. 누군가를 시기하는 것보다 축하해 줄 줄 아는 아이로 자라기를 바라기에 00이에게 우리 멋지다고 축하해 주자고 먼저 말하곤 해요. 얼마 후 문득 00이가 “엄마 나도 이름 적고 싶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컴퓨터로 ‘00’ 따라 적기 종이를 만들어 주었어요. 여기서 전 00이한테 해준 거라곤 따라 적기 종이를 만들어 주고, 그 종이를 여는 때와 같이 잘했다고 전시해준 것이 다입니다. 00이는 일주일 만에 자기 이름을 쓰는 아이가 되었어요. 놀이와 전시로 인한 자존감은 스스로 하는 아이로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00이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소리 지르고 고집쟁이 아가씨였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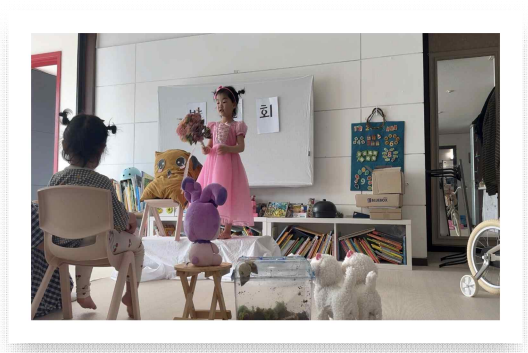


그 밖에 자기가 만든 악어에게 밥을 준 둘째 4살 00이. 언제나 내가 잘하고 있을까?, 내가 좋은 엄마일까? 하는 고민을 하지만 이런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을 볼 때마다 엄마도 성장해 나가는 거 같아요.

### 3) 어린이집 연계활동

저희는 모든 활동에 앞서 책을 읽어보고, 며칠 전 계곡에 가기 전에도 책에서 계곡 생물들을 찾아봅니다. 그런 식으로 놀이가 놀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그 시간이 아이에게 유익할 수 있도록 늘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에서도 책을 한 권 주세요. 집에서 활동 후 밴드에 활동사진을 올리라고 하시는데 아이가 책 읽는 사진을 올려도 되지만, 늘 그 책에 관련된 놀이를 하며 무리합니다.

어린이집에서 배운 리더십 스피치 가족들과 해보기!  
진심인 엄마는 무대를 만들어요! 동생, 달팽이 비비와  
보보, 부화를 앞둔 오리 알 4개, 고양이 초파(사진에는  
도망감), 엄마, 해외에서 일하는 아빠 이렇게 우리  
가족입니다.



#### 4) 지역사회 연계, 무료 공연

저희는 서산에 살고 있어요. 경상도에서 태어난 엄마가  
서산에 온 지 7년! 아직 많이 모르지만, 하나 자부할 수  
있는 것은 아이와 놀아줄 때 돈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저희가 자주 애용하는 곳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왁자지껄 놀이터(대근육), 오밀조밀  
놀이터(소근육, 미술활동), 도란도란 놀이터(독서) 공간이 무료로 예약제로 이용하고, 그 밖에 프로그램을  
늘 예약해서 단골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포 자연 놀이 뜰, 어린이 도서관 독후활동 만들기, 충남교육청  
유아교육원 체험, 서산이 어린이 무료 음악회와 무료 뮤지컬, 바다와 인접한 태안 꽃지 해수욕장 무료  
수영장, 갯벌 놀이, 모래 놀이 등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많은 체험들이 있다는 것을 어머님들과 꼭  
나누고 싶어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 사진도 동영상도 많은데 최근 것만 올려봅니다! 아이의  
성장과정은 인스타에 엄마표 놀이로 늘 기록해 둔답니다.